

# '눈·귀' 사로잡는 스마트폰 경쟁

갤럭시노트7 '홍채인식'  
LG V20 '프리미엄 사운드'  
애플, 헤드폰잭 제거 이어폰7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폰 갤럭시노트7를 최근 내놓고 인기몰이에 나선 가운데 LG전자가 다음달 V20을 선보이며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은 '눈'(홍채인식)으로 보안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V20은 '귀'(오디오)로 소비자의 마음을 흔적했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우리나라를 비롯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은 국내 상용화 스마트폰 가운데 최초로 갤럭시노트7에 홍채인식 기능이 탑재됐다. 제품에 홍채와 지문 인식 기능이 함께 들어있어 고객이 선택 이용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7에 탑재된 홍채인식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김형석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실 상무는 홍채인식이 현존하는 스마트폰 인증 수단 가운데 가장 보안성이 우수하다고 자신했다.

김 상무는 "서로 다른 사람의 지문이 일치될 확률이 1000만분의 1이라면 홍채의 경우는 10억분의 1 정도일 만큼 보안에 강하다"며 "대체 수단으로 DNA(유전자) 정보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야심작 G5 판매에 고전한 LG전자는 V20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LG전자가 휴대전화사업부(MC부문)의 적자행진을 끊어내기 위해 또 한번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LG전자는 다음달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7일 서울에서 공



선배 사원에게 직접 듣는 직무 이야기 25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채용박람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직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플래닛, 개발, 전략지원 분야에서 하반기 신입 사원 채용 및 동계 인턴 사원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개하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V20'에 '오디오' 기능을 강화했다.

LG전자가 'G5'에 이어 'V20'에도 세계적 오디오 기업 뱅앤올룹슨(B&O)의 B&O PLAY 부문과 기술협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LG전자는 G5와 결합해 사용할 수 있는 포터블 하이파이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 모듈인 'LG 하이파이 플래닛'을 B&O PLAY와 공동 개발했다.

LG전자는 고유의 하이파이 오디오 기술에 B&O PLAY 특유의 음질튜닝 기술을 더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뛰어난 프리미엄 사운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LG전자는 V20과 함께 제공되는 번들 이어폰도 B&O PLAY와 공동 개발한다. LG전자가 B&O PLAY는 번들 이어폰의 디자인부터 음색까지 함께 튜닝, V20의 명품 사운드를 최대한 왜곡 없이 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에는 애플의 아이폰7도 공개된다.

애플은 지난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 삼성전자에 밀리며 고배를 마셨던 만큼 아이폰7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애플 아이폰7은 다음달 23일 출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다음 달 7일 아이폰7과 아이폰7 플러스를 공개한 후 2주 뒤인 23일부터 정식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아이폰7의 4.7인치와 5.5인치 제품 모두에서 헤드폰잭을 제거해 사용자가 블루투스나 충전 포트를 통해 헤드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선회했다.

애플은 후속 제품에서 2개의 내부 안테나선도 제거했으며, 홈버튼도 기계식 스위치에서 맥북 최신기종에서 채용한 트랙패드를 같은 압력 감지식

으로 개선했다.

한편 IT 자문기관인 가트너(Gartner Inc.)는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22.3%로, 애플(12.0%)의 2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화웨이가 8.9%로 3위를 차지했고 오포가 5.4%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샤오미는 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모바일폰 판매량은 0.5% 감소한 가운데 글로벌 상위 10대 업체 중 중국 화웨이(Huawei), 오포(Oppo), 샤오미(Xiaomi), BBK, 삼성을 포함한 5개 업체만 판매량이 증가했다.

김영우 SK증권 연구원은 "삼성 갤럭시노트7의 기능 변화로는 홍채인식, 펜기 강화, 갤럭시S7 부품 채용(방수·듀얼피셀카메라), 블루코랄 에디션 등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며 "삼성은 갤럭시노트7의 예약 판매 물량 호조 등 초기 흥행으로 증산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신혼부부 평균 부채 4273만원

표본 분석... 2010년 대비 2014년 대출 98.1% ↑

결혼 1~5년차 신혼 부부의 평균 소득이 5123만원인 가운데 부채는 427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부채보다 소득이 많은 수준이지만 신혼부부 부채도 동시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가구 표본 분석을 발표했다. 2014년도 11월 기준, 혼인 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 5만 쌍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했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 조사를 위해 통계청이 보유한 공공 통계와 신용정보회사의 부채·카드 사용액 등을 연계·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부채는 4273만원, 평균 소득은 5123만원에 달했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0.8배로 전체가구 1.3배보다 낮았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평균 부채는 6745만원이었다.

신혼부부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대비 2014년 신혼부부의 대출은 98.1% 늘었고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122.6% 증가했다. 남편과 아내의 신용등급은 1~2

등급인 경우가 14.8%로 가장 많았다. 남편과 아내 모두 신용등급이 3~4등급 이내인 부부는 46.7%였다. 소득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남편이 25.8%, 아내가 23.2%로 낮은 수준이었다.

결혼 전과 후의 부채를 비교한 결과 남편의 부채가 아내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남편의 평균 부채는 결혼 전 1920만원에서 결혼 후 2602만원으로 34.8% 늘었다. 같은 기간 아내는 733만원에서 926만원으로 26.2% 증가했다.

결혼 후 소득은 남편이 7.7% 증가했지만 아내 소득은 결혼에 따른 경력 단절로 8.1% 감소했다.

결혼 1~5년차 신혼부부 중 무주택은 58.8%로 가장 많으며, 1채 보유 가구 33.6%, 2채 이상 7.5%이었다. 연차별로는 1년차 신혼부부 66.1%, 5년차의 경우 52.1%가 무주택이다.

출산 자녀수와 주택 구입 비율을 비교한 결과,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비율은 15.5%로 출산이 없는 신혼부부(11.5%)보다 높았다. /뉴시스

## “소비재 수출·관광객 소비 동시 늘려야”

코트라 '일본의 소비재 글로벌화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

우리나라 소비재의 글로벌화를 위해 소비재의 해외수출(아웃바운드)과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소비(인바운드)가 연계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25일 발간한 '일본의 소비재 글로벌화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콜재팬(Cool Japan)과 로컬 콜재팬(Local Cool Japan) 전략을 통해 소비재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콜재팬은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소비재(패션, 식품)와 콘텐츠·관광을 조합해 관련 산업의 해외 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이고 로컬 콜재팬 전략은 일본을 직접 체험하기 위한 관광객을 늘리고 인바운드 소비를 확대해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목표다.

이 같은 전략으로 일본의 대중 소비재 수출 비중(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은 2005년 4.0%에서 2014년 8.3%로 2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비재 수출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중 소비재 수출 비중은 최근에도 2%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코트라는 ▲내수시장에 머무는 지역상품 발굴을 통해 소비재 수출품목의 다변화 ▲코리아 브랜드를 통합·연계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의 진출방안 모색 ▲메이드인코리아(Made in Korea)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통합된 제품 이미지 구축 ▲정부의 해외 마케팅 지원정책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소비재 수출 확대전략으로 ▲역지구 트렌드를 활용한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 ▲수출규모와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화장품, 과자류, 음료수, 목욕용품·두발용 제품 등)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을 위해 타깃 시장별로 정확한 목표와 방향 설정 등을 제안했다. /뉴시스

## 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350%+330만원 등

이번 합의에서 현대차 노사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거와 같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성과급 또한 축소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반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 확대, 복지 증진 차원의 근무복, 식사질 개선 등을 통해 교섭 패러다임을 '건강·복지후생'으로 변화시

켰다는 평가다.

또한, 현대차 노사는 미래 임금경쟁력 확보와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적용기로 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승진거부권, 일부 직군의 자동승진제 및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과업 장기화에 따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피해가 가중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현대차 노사가 '과극만은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을 정상화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사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조함원 찬반투표는 26일 실시한다. /원주=이종복 기자



###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계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